**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뉴 커런츠 심사위원 공개!**

**오는 10월 2일(수)부터 11일(금)까지 열흘간 개최되는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 경쟁부문인 뉴 커런츠의 심사위원 5인을 확정했다.**

**아시아영화의 내일을 결정할 5인의 심사위원!**

**심사위원장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부터,**

**이명세 감독, 배우 주동우, 배우 카니 쿠스루티,**

**바냐 칼루제르치치 로테르담영화제 집행위원장까지!**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심사위원장)



(사진 왼쪽부터) 이명세 감독, 배우 주동우



(사진 왼쪽부터) 배우 카니 쿠스루티, 바냐 칼루제르치치 로테르담영화제 집행위원장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뉴 커런츠는 아시아 영화계의 내일을 밝히는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선보이는 부산국제영화제의 대표 경쟁부문이다. 아시아 영화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며 영화계에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갈 신예 감독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해온 부산국제영화제의 뉴 커런츠는 매년 국내외 영화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왔다.**

**올해 뉴 커런츠 심사위원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을 포함해 한국, 아시아, 유럽의 권위 있는 영화인 5인이 심사위원을 맡아 아시아 신인 감독들이 만든 최고의 영화를 판별한다.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두 편의 영화에는 각 3만 달러의 상금을 수여한다.**

뉴 커런츠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된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은 그가 만들어온 영화작품으로 인해 이란 정부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아온 영화인으로 2017년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대상을 받은 <집념의 남자> 이후엔 여권을 압수당했고, 2020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인 <사탄은 없다> 때는 영화제 참석을 전면 금지당했다. 2022년 정부를 비판하고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살다 나온 그는 <신성한 나무의 씨앗> 완성을 앞두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를 모의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고 결국 칸영화제 기간 동안 서구로 망명을 해 국제적으로 큰 화제가 됐다.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의 <신성한 나무의 씨앗>은 2024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한편, 함께 하게 될 심사위원으로는 한국영화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탁월한 스타일리스트로 인정 받고 있는 이명세 감독과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2016), <소년시절의 너>(2019)를 통해 최연소로 중화권 3대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주동우가 선정됐다. 그리고 <비리야니>(2019)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주연작 <걸스 윌비 걸스>로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으로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아 화제가 된 배우 카니 쿠스루티와 2020년부터 로테르담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독립영화 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는 바냐 칼루제르치치도 심사위원으로 함께 한다.

뉴 커런츠 5인의 심사위원을 공개한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10월 2일(수)부터 10월 11일(금)까지 열흘간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뉴 커런츠상 심사위원 프로필**

■ 모함마드 라술로프 Mohammad RASOULOF | 이란 | 감독 | 심사위원장

이란의 독립영화감독, 작가, 프로듀서 모함마드 라술로프는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로 영화제작을 시작했다. 첫 다큐드라마 영화 <황혼>(2002)은 이란 파지르국제영화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으며, 두 번째 영화 <철의 섬>(2005)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별>(2011), <진실은 불타지 않는다>(2013), <집념의 남자>(2017) 등 지금까지 8편의 장편 영화를 제작했고 칸영화제를 포함한 여러 권위있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특히 <사탄은 없다>(2020)는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받았다. 그의 영화는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이란에서는 검열로 모두 상영 금지 처분을 받았다. 신작 <신성한 나무의 씨앗>(2024)은 올해 칸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 이명세 LEE Myung Se | 한국 | 감독

이명세 감독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다. 한국 영화 100년 최고의 한국영화 100편에, <개그맨>(1988), <첫사랑>(1993), <인정사정 볼 것 없다>(1999) 등 세 편의 영화가 선정되었다. 그밖에도 <남자는 괴로워>(1995), <지독한 사랑>(1996), <나의 사랑, 나의 신부>(1990), <형사>(2005), <M>(2007)과 최근작 <그대 없이는 못 살아>(2017), <아버지가 사라졌다>(2022), <더 킬러스>(2024)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선보이는 작품마다 독창적이고 새로운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는 한국영화 최고의 스타일리스트다.

■ 주동우 ZHOU Dongyu | 중국 | 배우

장이모우 감독의 <산사나무 아래>(2010)로 데뷔한 주동우는 <그래도 좋아해>(2017), <먼 훗날 우리>(2018) 등으로 국제적인 호평을 받고 있는 배우이다.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2016)로 제53회 금마장 여우주연상, <소년시절의 너>(2019)로 2020년 제39회 금상장과 제33회 금계장 여우주연상을 받아 최연소로 중화권 3대 영화제에서 모두 수상한 배우로 등극했다. 제24회 상하이국제영화제, 제13회 베이징국제영화제의 경쟁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영화인으로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 카니 쿠스루티 Kani KUSRUTI | 인도 | 배우

사진 바부 감독이 연출한 <비리야니>(2019)로 스타덤에 오른 카니 쿠스루티는 2020년에 케랄라주영화상 여우주연상, 모스크바국제영화제에서 BRICS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그녀는 말라얄람어, 타밀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영화에서 다채롭고 도전적인 캐릭터를 소화해 다재다능한 배우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가로서 성평등, 인권 등 사회정치적 이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에는 주연을 맡은 <걸스 윌비 걸스>(2024)가 선댄스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우리가 빛이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 바냐 칼루제르치치 Vanja KALUDJERCIC | 네덜란드 |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2020년 2월부터 로테르담영화제의 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된 바냐 칼루제르치치는 영화제의 예술적 위상을 높이고 영화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독립영화 인재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래밍을 이끌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는 그녀는 작품 큐레이션은 물론 영화 산업에 대한 전문성으로 20년 넘는 경력을 쌓아왔다.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 MUBI의 작품 구매 담당 이사직과 유럽의 세일즈 배급사인 COPRODUCTION OFFICE를 거쳐, 레아크유럽영화제, 사라예보영화제, 네덜란드영화제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베를린영화제,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안시영화제, BFI런던영화제 등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 10월 2일(수) - 10월 11일(금)**

**\*제19회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 10월 5일(토) - 10월 8일(화)**